

# 기적은 없었다...한국 3회 연속 WBC 1회전 탈락

호주, 체코 꺾고 WBC 8강  
2015년 이후 8년째 부진  
투수 기량 평균 이하 하락

기적은 없었다. 호주가 13일 일본 도쿄도 료돔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B조 최종 4차전에서 체코를 8-3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6년 만에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내건 14년 만의 4강 목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호주와 일본전 패배로 탈락위기에 몰린 한국은 체코가 호주를 꺾어주는 실낱같은 희망에 기댔으나 이번은 없었다. B조에서 3승 1패를 기록한 호주가 일본(4승)에 이어 조 2위를 확정, 8강에 올랐다.

한국은 이날 중국전 결과와 관계없이 탈락이 확정됐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호주와 일본에 잇달아 패하고 체코전에서만 승리해 1승 2패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 제1회 WBC에서 4강 진출, 제2회 WBC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이후 3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

왔다.

호주는 제1회 WBC부터 출전했으나 1라운드 통과해 8강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해태 타이거즈에서 현역으로 뛸 때 솔하게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kt 위즈 감독으로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우승도 이뤄 단기간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강철 감독은 대회 전 “단기간은 컨디션 좋은 몇 명의 투수로 마운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호주와 일본 두 경기 실점에서 보듯, 현재 대표팀에서 컨디션이 좋은 투수가 누구인지 좀처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투수진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끝려갈 때 추가 실점을 막을 추격조도, 앞서갈 때 상대 예봉을 꺾을 필승조도 없는, 한국 마운드는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고 2009 WBC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가 한국 야구의 황금기였다. 그것도 벌써 14~15년 전 일이다.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4강에서 일본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해 잠깐 반등했지만, 이후 급격한 내리막을 탔다.

특히 세계 야구 최강국 결정전이라는

2013·2017·2023 WBC에서 3회 연속 1회전 탈락은 충격적인 결과다.

한국 야구가 추락하고 있다는 전조는 진작에 있었지만,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야구는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19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에서 대만에 0-7로 졌다.

한 수 아래로 여긴 대만에 완패했는데도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가려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당시 슈퍼라운드와 결승에서 한국은 일본에 8-10, 3-5로 두 번 모두 졌다.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은 4강에서 일본에 2-5로 패했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2점에서 3점으로, 급기야 최강의 멤버끼리 맞붙은 이번에는 9점으로 크게 벌어졌다.

메이저리가 없는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에도 연패한 한국은 6개 나라가 출전한 도쿄올림픽에서 4위에 머물렀다.

이처럼 한국은 2015년 이후 8년째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타자도 문제지만 평균 이하로 고꾸라진 투수 기량이 결정적이다.

과거 한국 투수 중에서 ‘일본 킬러’ 구대



13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본선 1라운드 호주와 체코의 경기에서 호주의 8-3 승리로 끝났다. 경기를 마친 호주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대만 킬러’ 정민태 등 강팀을 잡을 ‘표적 킬러’가 사라졌다. 김광현의 뒤를 이을 좌완 일본 킬러 재목을 못 키워낸 게 KBO 리그의 현실이다.

타자나 투수나 국제대회에서 늘 힘들어했기에 KBO는 ‘스트라이크존의 정상화’를 통한 사실상의 스트라이크존 확대를 국제 경쟁력을 높여보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상황이라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영건들의 성장은 더디고, 한국 야구 황금

기를 이끈 주역들은 이제 국가대표 은퇴를 앞두고 있다. 최근 부진한 성적 탓에 선배가 승리의 달콤함을 후배에게 계승하는 전통이 이제는 사라질 국면에 이른 셈이다.

KBO 사무국은 이번 WBC에서의 선전을 4월 1일 개막하는 프로야구 정규시즌으로 이어가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지만, 팬들에게 또 한 번 실망감만 안겼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오명을 자초한 한국 야구가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연합뉴스

## 화순군청 주태웅 복싱 AG 태극마크

선발전 +92kg급 우승  
전남 3명 대표 선발

화순군청 주태웅(26)이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주태웅은 지난 12일 김해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남자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 +92kg급 결승에서 김도현(남해군청)을 만나 치열한 접전 끝에 3-2 판정승으로 승리, 생애 첫 국가대표 타이틀과 항저우 아시안

게임 티켓을 획득했다.

전남은 1·2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일찌감치 국가대표를 확정 지은 임애지(화순군청), 박조룡(화순군체육회)에 이어 주태웅까지 국가대표에 승선하며 전남 소속 선수 3명이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박지선 화순군청 감독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 화순군과 화순군체육회의 많은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며 “올해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을 펼쳐 전남복싱과 전남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태웅

인공이 됐다.

이들은 아시안게임에 앞서 5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최진화 기자

말했다.

한편, -57kg급은 이예찬(성남시청), -71kg급은 이상민(영주시청), -80kg급은 김진태(국군체육부대), -92kg급은 정재민(남원시청)이 각각 아시안게임 출전권의 주

## KIA 임기영 시범경기 2이닝 무실점

한화에 1-6 패배

KIA 타이거즈 임기영이 선발 로테이션 합류를 향해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임기영은 13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의 2023 KBO리그 첫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 2이닝 동안 55개의 공을 던지며 2피안타 3볼넷 무실점을 기록했다. 임기영은 3회 초 시작과 함께 김승현과 교체됐다.

지난 3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롯데와의 연습경기에서 2이닝 동안 단 24개의 공

을 던진 것과는 대비를 이뤘다.

임기영은 1회 말 1사 한화 정은원과 채은성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1사 2,3루가 됐다. 그러나 후속 타자를 각각 파울플라이와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위기를 넘겼다.

2회 말에도 2사에서 한화 최재훈과 박정현, 노수광을 연속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2사 만루 위기를 맞았으나 후속타자 정은원을 우익수 플라이 아웃으로 잡아내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한편 이날 KIA는 한화에 1-6으로 패배했다. /조혜원 기자

## KADA 글로벌 캠페인 세계도평방지의 날 기념 #약하지않아약속챌린지

한국도평방지위원회(이하 KADA)가 전 세계 스포츠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캠페인 ‘세계도평방지의 날’을 기념하고 전남에서 열리는 2023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클린한 대회를 기원하며 #약하지않아약속챌린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13일 KADA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도평방지캠페인송 ‘약하지않아! (I'm Strong)’ 음원에 맞춰 손동작을 통해 생활속 도평방지를 다짐하고 약속하지는 취지로 진행된다. 생활체육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간단하게 참가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오는 4월 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챌린지 참여방법은 KADA 인스타그램 ‘릴스’ 탭에서 ‘약하지않아약속챌린지’ 영상을 선택, 리믹스 하기를 통해 KADA 캐릭터 ‘톤톤’의 도평방지 손동작을 따라한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게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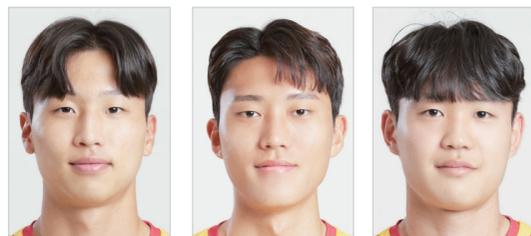
이영희 KADA 위원장은 “2023 세계도평방지의 날을 맞아 체육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스포츠 가치를 서로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도평방지의 날은 공정하고 평등한 클린스포츠 실현을 위해 2013년에 세계도평방지기구(WADA) 교육 컨퍼런스에서 처음 선언됐다. 2023 세계도평방지의 날 기념식 행사는 2023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공정한 경쟁을 응원하고자 4월 14일 무안 스키아리엔선에서 열린다. /최진화 기자



황희찬, 복귀전 골 신고식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황희찬이 12일(현지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EPL 2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첫 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리그 5경기에 결장했던 황희찬은 이날 골을 터뜨리며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으나 팀은 뉴캐슬에 1-2로 패했다. /AFP=연합뉴스



엄지성

허울

정호연

## 광주FC 엄지성·허울·정호연 ‘황선홍호’ 발탁

올림픽·AG 대비 친선경기

광주FC 엄지성(21·MF)과 허울(22·FW)이 파리 올림픽 대비 2023 도하컵 U-22 친선대회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정호연(23·MF)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카타르 원정 친선 경기 대표팀에 선발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3일 카타르 원정을 나서는 U-22대표팀과 U-24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파리 올림픽 대비 U-22 대표팀은 오는 23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도하컵 U22 친선대회에 참가한다. 대회 조직위의 대진 편성에 따라 한국은 23일 오만, 26일 이라크와 대결할 예정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U-24대표팀에 소집된 정호연도 카타르 원정을 떠나 중동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 선수는 25명이 부름을 받았다. 명단에는 김정훈(당진시민·이상 GK), 박종범(FC서울), 조성민(당진시민·이상 GK), 박규현(다나모 드레스덴), 변준수(대전하나시티즌), 서명관(부천FC), 이상혁, 장시영, 조현택(이상 울산

현대) 이태석(FC서울), 조성권(김포FC), 황재원(대구FC·이상 DF), 고영준(포항스틸러스), 권혁규(부산아이파크), 박창환(서울이랜드), 백상훈(FC서울), 안재준(부천FC), 이진용(대구FC), 이현주(바이에른뮌헨), 정상빈(그라스호퍼·이상 MF), 김신진(FC서울), 홍시후(인천유나이티드), 홍윤상(뉘른베르크·이상 FW)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U-24 대표팀과 함께 20일 소집돼 곧바로 카타르 원정을 떠난 뒤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24세 이하 대표팀에는 정호연을 비롯해 만 24세 이하 선수 25명으로 구성됐다. 명단에는 고동민(경남), 민성준(인천), 이광연(강원·이상 GK), 김태현(배달의민서), 이상민(성남), 이재익(서울이랜드), 임택근(대전), 장민규(마치다 젤비아), 조진우(대구·이상 DF), 김봉수(제주), 김태환(수원), 박경민, 황태현(이상 서울이랜드), 어정원, 최준(이상 부산), 이수빈(전북), 홍현석(KKA 헛트·이상 MF), 고재현(대구), 엄원상(울산), 오세훈(시미즈 S벨스), 이호재(포항), 조성준(경남), 조영욱(김천), 천성훈(인천·FW)으로 구성됐다. /조혜원 기자